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경: 누가복음 2장 1-14절

Tag:

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

## 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2:1-14)

요즘은 엉뚱한 논리로 성경의 진실성을 폄훼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이 전혀 역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또는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를 보면 연대기가 틀리다고 반박한다. 또 다른 몇몇 증거들 사이에 연대기가 몇 년씩 틀리다면 과연 어떤 책이 진짜일까? 10년 차이가 난다고 역사적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기억력 착오로 봐야 할까? 성경을 반박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경이 틀렸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성경이 틀림없다고 우길까? 그렇지 않다. 둘 중 누군가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것은 지금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그것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아무도 그 날짜를 모른다. 물론 성경에도 날짜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의도적으로 훗날 12월 25일로 정했을 뿐이다. 이것만 알려진 사실이다. 누가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주장하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성탄절의 날짜를 12월 25일로 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다.

인구조사가 없었다고? 어떻게 단정짓나? 6년경에나 있었다고? 그 기록이 사실이고 성경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나? 오히려 6년경의 기록이 잘못된 기록일 가능성은 없나? 그리고 한번만 인구조사가 있었겠나? 성경에서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다. 모든 인구조사의 방법이나 조건이 편편일률적이었겠나? 단순한 추측으로 성경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믿고 싶지 않다는 주장일 뿐이다. 개인적 의견일 뿐 그 말의 권위나 가치를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경은 년도나 날짜 같은 사소한 주제에 팩트체킹 하지 않았다. 왜냐면 어차피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있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나 년도가 중요하지 않다. 날짜나 년도가 틀리다고 해서 전체적인 핵심 내용도 거짓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논점을 흐릴려는 야비한 야바위 짓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 같은 내용을 애굽에서 무엇 때문에 역사적 기록으로 삼겠는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그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삼을 뿐이다. 그러니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얼마나 우스운가?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지 않는가?

누가는 자신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팩트-체킹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술하였다고 쓰여있다.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눅1:1-4)

아마 호적하라는 명령은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도록 하라는 명이었을 것이다.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 아마도 임신한 사실 때문에 급히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잠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급하게 방문하게 되었을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아마 추운 겨울에 당도하지 않도록 한여름이 지난 후 기왕이면 장막절 즈음에 성전에도 들를 겸 해서 초가을에서 늦가을 경에 길을 떠났을 가능성이 짙다.

당연히 인파가 밀렸을 것이고 겨우 마굿간에서 밤을 새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아마 요셉은 메시야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본즉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실현되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날짜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록은 아니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하나님은 주도면밀하게 메시야의 탄생을 실현하셨다. 그리고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군천사를 베들레헴 하늘에 보내셨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마침 양떼를 먹이던 목동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천사들의 계시를 받았다.

놀라운 점은 그 하늘의 축하찬양을 보게 된 관중들이 고작 십여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관중들보다 연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또 천사들은 목동들이 두려워 할 것을 염려해서 해설자로 목동들 곁에서 있어 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있게 될 천군천사들의 축하찬양 행사를 해설해 주었다.

‘오늘은 크고 놀라우며 기쁜 일이 있는 날이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

‘너희가 가서 확인하여 보아라. 강보여 싸여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천사들이 말한 그 아이로구나 하고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이 말은 이 확실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는 의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진정한 회복이다.

-천사들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목동들에게 증언하였다.

-목동들은 당시에 매우 천하게 여기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들은 보잘 것 없었지만, 진실한 자들이었고, 오늘 본 하늘의 큰 잔치를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려는 자들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정치인도, 종교인도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이 이야기를 가감없이 사상적 해석 없이 편집 의도 없이 전파할 수 있었다.)

-그런 목동들의 성품, 목동들의 삶의 태도, 목동들의 진실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기뻐 하셨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다.

-천사들의 찬양 주제도 두가지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목동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성탄의 기쁨을 알고, 이날을 기념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날로 삼지 않는 여러분이 진정한 목동들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다. 그들에게 천군천사를 파송하신다. 요즘에는 사라졌지만, 새벽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영혼을 위해 기쁜소식을 전해주려는 행사 아닌가?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 아멘.

## 성탄 기념행사

### 성경퀴즈.

1.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소식인가?

- ①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났다.
- ② 다윗의 동네에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이다.
- ③ 천군이 천사와 더불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④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였다.

2. 다음 중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은?

- ① 동방박사 네 사람은 먼저 헤롯대왕에게 찾아갔다.
- ② 헤롯대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 ③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말하였다.
- ④ 동정녀 마리아는 오직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3. 오늘 설교 말씀과 내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 ①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생년월일에 관심이 많았다.
- ②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다.
- ③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아 구유에 눕혔다.
- ④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진정성이 있는 책은 성경책이다.

4. 성경암송대회

5. 빨리 알아맞히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름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의 이름은?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무엇인가?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몇 달을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 6. 연상퀴즈 (두팀)

\*주어진 단어를 모두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 대결

1팀

베들레헴, 동방박사, 요셉, 황금, 별

2팀

예루살렘, 목동, 마리아, 유향, 구유